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각국의 번영을 위해 한뜻으로 협력”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준 경하는 의장님, 아마노 유키야(Amano Yukiya) 사무총장님과 회원국 대표단 여러분!
오늘, 제57차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57차 IAEA 총회 의장으로 선출되신 콜리사 마봉고 의장님께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번 총회 역시 성공적으로 진행되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한국은 이번 총회를 통해 IAEA에 신규 가입한 브루나리와 바하마를 환영하며 향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각국의 번영을 위해 한뜻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원자력 이용 증진 노력

의장님,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 기후 변화 대응 등 인류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자력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러시아에서 개최된 IAEA 원자력에너지 각료회의¹⁾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 등을 논의한 것은 매우 뜻 깊고 시의 적절했다고 생각하며 IAEA 사무국의 노력을 치하하는 바입니다. 한국은 원자력이용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원자력발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습니다. 현재 23기의 원전을 운영하여 국내 총발전량의 약 30%를 공급하고 있으며, '24년까지 11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의장님,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더불어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같은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파이로프로세싱 및 제4세대 원자로인 SFR²⁾을 연계하는 순환형 핵주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한국은 그밖에도 안전성이 강화되고 혁신적인 미래 원자력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GIF³⁾, INPRO⁴⁾ 등 국제 공동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한 해체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와 관련한 기술 개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57차 IAEA 정기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의장님,

한국은 의료, 농업, 산업, 환경 분야에서 방사선 기술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의료용 동위원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연구용 원자로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난치성 암 치료를 위한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개발에 매진하는 한편, 금년부터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신약 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IAEA 협력을 통한 국제 사회 기여

의장님,

한국은 국제적 원자력 기술 격차 극복 및 원자력 혜택 공유를 위해 IAEA 및 회원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개도국들의 원자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 활동,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구상(PUI)⁵⁾에 대한 기여, 아시아원자력교육훈련네트워크(ANENT)⁶⁾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역내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 등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태원자력협력협정(RCA)⁷⁾의 지역사무국을 2004년부터 설립 및 지원하여 지역의 개발 문제와 수요 대응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제원자력안전학교의

다양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으로 원자력후발국의 안전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시아원자력안전네트워크(ANSN)⁸⁾ 등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국제 원자력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IAEA의 개도국 암퇴치사업(PACT)⁹⁾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민간의 자발적인 모금 활동과 함께, 아시아 및 중동의 시범 지원 국가(PMDS)¹⁰⁾를 대상으로 방사선의학 역량 강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 강화

의장님,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IAEA의 국제 원자력 안전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에 대하여 사의를 표명합니다.

원자력안전Action이행을 위한 테스크 포스 구성, 지속적 국제 전문가 회의 개최 및 결과 공유, IAEA의 후쿠시마포괄보고서¹¹⁾ 발간 추진 등 IAEA의 다양한 지원 활동을 환영하며,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한국은 원자력 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총50개 장단기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금년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원전의 보강 스트레스 테스트¹²⁾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합원자력안전규제검토서비스(IRRS)¹³⁾수검 결과에 대한 후속 점검을 충실히 이행하여 한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은 글로벌 원자력 안전성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핵비확산 및 핵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 노력

의장님,

오늘날 핵테러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안보 위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국제 핵안보 체제 강화를 위한 IAEA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는 바이며, 2013 IAEA 핵안보 국제회의의 참여 등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 노력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14년 개소 예정인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INSA)¹⁴⁾는 지역 핵안보 강화를 위한 양질의 교육 훈



런 프로그램을 IAEA 회원국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4년 2월경에 IAEA 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PPAS)¹⁵⁾를 수검하여 한국의 물리적 방호 체제를 총체적으로 점검 받을 예정이며, 이 수검 결과를 통해 한국의 물리적 방호 체계가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IAEA 환경시료분석연구네트워크(NWAL)¹⁶⁾에 참여하여 핵물질 분석을 적극 지원하는 등 IAEA 핵검증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 촉구

의장님,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북한은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이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도발을 감행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핵보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 사회는 단호하고 단합된 목소리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안전 조치 이행을 책임지는 IAEA가 금번 총회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다시 한 번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상의 비핵화 관련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고, 핵확산금지조약

(NPT)¹⁷⁾와 IAEA 안전조치협정의 의무를 조속히 그리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북한은 핵개발과 도발을 통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며, 고립만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통해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그동안 IAEA의 노력과 협조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IAEA가 철저한 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 핵의 감시 및 검증 등 관련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희망합니다.

맺음말

의장님,
지금까지 국제 사회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왔고, 반복되는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IAEA를 중심으로 회원국들의 뜻과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갈 때, 원자력 기술을 통한 인류의 번영과 행복 증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를 위해 한국은 IAEA 사무국 및 회원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콘돌리사 마봉고 의장님의 선출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57차 IAEA 총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의장님, 사무총장님과 IAEA 사무국의 노고에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The 3rd International Ministerial Conference on Nuclear Power in the 21st Century
2) SFR : Sodium cooled Fast Reactor
3) GIF :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4) INPRO : International Project on Innovative Nuclear Reactors and Fuel Cycles
5) PUI : Peaceful Use Initiative
6) ANENT : Asian Network for Education in Nuclear Technology
7) RCA :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8) ANSN : Asian Nuclear Safety Network

9) PACT : Programme of Action for Cancer Therapy
10) PMDS : PACT Model Demonstration Site
11) Comprehensive Report on the Fukushima Daiichi Accident
12) Augmented Stress Test
13) Integrated Regulatory Review Service
14) INSA :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Security Academy
15) IPPAS : International Physical Protection Advisory Service
16) NWAL : Network of Analytical Laboratories
17) 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